

## 오피니언

김별아의 '문학과 삶'



## 여행, 설렘과 그리움의 기억

惆悵 같은 도시를 떠나 백두산에 다녀왔다.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중 남한 구간인 지리산에서 진부령을 완주한 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트레킹 여행이었다.

나는 평소 대단한 여행왕이 아니다. 도리어 '방(例) 쪽(처박혀 지내는)' 체질에 가깝다. 하지만 가끔씩은 무거운 몸과 게으른 마음을 일으킨다. 도망치거나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돌아오기 위해, 돌아와 더욱 단단히 뿌리박기 위해, 떠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꾼다. 애써 일상의 터전을 벗어나 낯선 곳에 머물고자 한다. 하지만 여행의 이유는 반드시 유명한 명승지나 멋진 풍경을 보려는 데 있지 않다. 명승지와 풍경 앞에서 판에 박힌 표지를 취하고 '인증샷'을 찍기 위해만 바쁘다면 여행이리기보다 관광을 한 템이다.

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얻은 것이 사진의 배경뿐이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비슷한 감흥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여행의 즐거움은 어느 한 순간에 있다기보다 전 과정에 있어야 마땅하다.

여행을 떠나기 전의 즐거움은 설렘과 기대다. 먼저 묻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며 새로운 곳에서 만날 새로운 경험을 상상한다. 이번 여행은 중국 쪽에서 갈 수 있는

백두산의 세 봉우리 남파, 서파, 북파를 모두 오르는 것 외에 연변 지역에 남아있는 항일유적지와 한민족의 자취를 탐사하는 역사문화기행으로 계획되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느끼는 것이 당연지사. 함께 백두대간을 종주했던 부모, 아이들과 즐겁생, 이웃 등 동행들이 중국의 역사,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항일 운동, 역사의 현장, 백두산 등산 코스, 백두산의 식생, 동북공정 등의 분야를 분담해 조사하여 자료집을 만들었다. 나와 아버지 같은 부분은 첫날 방문한 용정의 인물, 서늘한 경외와 어려운 현민으로 떠오르는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였다.

'논어'에 나오는 내성불구(스스로 들이켜려고 부끄러움이 없음)를 실현한 시인의 삶은 삶을 용정촌의 소박한 생활 마루에 앉아 곱씹으니 브레이트하고 노래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일절처럼 문득 나 자신이 미워졌다. 환난의 시대에 부끄럼지 않은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수한 '반역자'들의 목이 매달렸던 마을 어귀의 베어진 나루 둑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따가운 햇살 때문인지 자꾸 눈이 시렸다.

기실 여행을 하는 동안은 피로와 긴장으로 단기기억상실의 상태에 빠진다. 몇 번이나 목록을 확인하며 꾸렸던 짐은 더

무니없이 비대하거나 부족하다.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도 빼어 놓고 가리 했거나, 꼭 필요한 건 빼먹고 너절한 것들만 잔뜩챙겨왔다. 마치 군더더기에 껴들려 알짬을 놓치는 삶과 같다. 게다가 일상에 지배당했던 몸과 마음은 산봉우리를 향해 가는 동안 비명을 지르거나 불평을 터뜨린다.

남파의 등성이, 서파의 1441개 계단, 설악산을 연상시키는 북파의 너털 지대는 무릎과 종아리에 타격을 가한다. 해발 2천

미터를 넘어서면서 미미한 고산 증세로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픈 것도 산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고통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컸다. 웬만한 풍광을 봐서는 절대 흔한 흔하지 않는 삽만한 돌십보인이나마저도 터져 나오는 감탄사를 주체하지 못하게 한 천지, 그 푸르고 신비로운 물빛, 산빛, 하늘빛을 찾는 순간 친밀감의 일상의 기억이 툭 끊겼다.

피로와 긴장이 배시시 풀리고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 따윈 까맣게 잊었다. 비록 중국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지만 영산(靈山)은 영산(永山), 아무리한 국적이나 시간에도 매일 수 없는 영원이다.

여행의 매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된다.

1930년대 경상도에서 이주한 농민과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안도의 신둔촌(新屯村)에서 민박한 히트밥과 연변대 학교에서 들은 허명철 교수의 특강은 중국 내 조선민족·조선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큰 배움이 되었다.

돈벌이를 위해 남한에 기고파하는 짚은이들이 떠나는 우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치이지만 모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감정'이라던 허 교수의 말은 비행기의 이륙 굉음을 듣는 순간까지 깃전에서 맴돌았다. 벽차고 횃불하고 행복했으나 한편으로 서럽고 마음 아팠던 엿새간의 여행이 그렇게 끝났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한동안 일상하다. 가득 찬 메일함과 뒤늦게 전달된 멀티메시지들은 한편으로 내가 제법 쓸모 있는 (!?) 사람이나 하는 안도감과, 어쨌거나 다시 이려구려 복닥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구속감을 느끼게 한다.

일상은 힘이 세다. 며칠만 지나도 언제 여행을 다녀왔느냐는 듯 까마득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때 마음을 물들인 설렘과 그리움만은 고단한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배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행을 꿈꾸나 보다. 나를 떠나 가장 나 다른 순간을.

(소설가)

## 종 고 칼럼



##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역사를 쓴다

1864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당시 세입위원 장이란 자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누진세법안을 비판한 주장이다.

고소득자에게 처음으로 고작 1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던 '세제개혁'은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이 위원회는 '누진세율을 주장하는 의견은 부도덕하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한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애피소드를 다시 끄낸 것은, 계통되지 않은 과거의 낸센스를 통해 새삼 오늘 인류가 이뤄낸 진보와 발전을 확인하고 동시에 향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절대왕조, 봉건사회, 시민사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발전의 축은 인간존중과 상호연대 그리고 평등 이념의 실현이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회두가 된 복지 문제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대신은 앞두고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넘쳐나지만 육석을

가리는 기준은 그 정책이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와 방향에 대한 수렴의 정도여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마태오복음 20장 1~16절)에 이런 비유가 있다.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서 일꾼한 명을 1데나리온(한 가족의 하루 생계비 정도)에 산다. 같은 포도밭 주인이 해가 기우는 해를 참인데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다른 일꾼을 발견하고 역시 1데나리온에 산다. 해가 지자, 주인은 일을 마친 두 사람에게 약속대로 1데나리온씩 지불한다. 이런 주인의 셈법에 대해 처음 고용된 일꾼은 불공평하다고 항변한다. 주인은 따지는 일꾼에게 "첫째가 끌끌 되고 끌끌 가 첫째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처음 고용된 일꾼은, 나중에 고용된 일꾼이 늦은 오후 포도밭에 오기 전까지 온종일 그늘 밑에서 배 두드리고 노닥거리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첫번째 일꾼은 뒤에 고용된 일꾼이 이론 아침부터 일한 자신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인은 이런 일꾼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지금은 네가 첫째일지 모르지만 결국 끌끌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주인은, 비록 뭉뚱이는 종일토록 빙동거렸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무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애간장이 녹아내렸을 나중에 고용된 일꾼에 대한 첫번째 일꾼의 무심함을 경고한 것이다. 주인은,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삶 역시 절대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처음 고용된 일꾼의 물엄치를 경고한 것이다.

첫번째 일꾼의 입장만을 견지한 채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혜아려 주고 감싸 주는 마음이 없다면, 차를 고용된 일꾼의 주장만을 고집한 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을 급진주의자로 내몰고 이들의 의견과 정책을 펼쳐한다며 우리 사회는 포도밭 일꾼 신드롬에 처해 있고, 포도밭 주인의 경고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목포기록대학교수·신부)

"부자는 이유로 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기고



##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더욱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타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 최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 고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7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화 심포지엄'을 개최해 전 세계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네스코 지질공원 아시아 태평양위원회장인 말레이시아 이브라임 꼬무, 호주 국립공원 자문관인 앤디스페이트, 허민 전남대 교수 등 100여명이 석학이 머리를 맞대고, 무등산의 가치 조명을 통해 무등산 일대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에 대

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번 심포지엄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자연유산을 연구하는 국제학회인 '제11회 세계중생대육성생태학회'를 광주에 유치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에게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이 증명되어 광주시의 지명도가 크게 높아짐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 기회도 확대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유산 등재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현재, 세계유산은 총 936점으로 문화유산이 725점, 자연유산이 183점, 복합유산은 28점인데 그 중 우리나라에는 10점으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등 문화유산 9점과 자연유산으로는 2007년에 등재된 제주 화산群과 용암동굴이 유일하다.

세계문화유산은 세계자연유산에 비하여 약 4배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유산의 등재가 비교우위를 끼쳤던 입증할 근거 제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이 각 나라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등재의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자연유산의 경우는 전세계의 무수히 많은 자연 중 가장 타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학술적 근거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8명의 전문가 TF팀을 구성, 2011년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2012년부터 무등산의 생성과 변화과정 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한 등재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런 시민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기간이 더 늦게 되고, 그래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보호 아동들이 많아지다가 결국 해외로 입양되는 것이다.

국내 입양이 늘어나려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핏줄을 따지는 관습이 사라져야 한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입양 사실을 알리는 가족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벽을 깨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양 아동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혼모 자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급히 해야 한다. 현재 미혼모들에게는 한 달에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만 이는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당장 취직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에는 아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의 아이를 데려와 키워주고, 다시 부모에게 이를 돌려주는 수양부모도 늘어나고 있다. 정말 천사 중의 천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수양부모 역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린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해외 입양을 허용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07년에 만들어진 국내 입양 우선 정책으로 해외 입양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적의 시기에 입양을 못 가다 보니 보호

## 시설

## 불황 늪에 빠진 지역경제 타개책 없는가

광주·전남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세가 심화되고, 재고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세계 골물가격 폭등으로 '식탁 물가'의 악영향과 함께 최악의 식량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매출이 70으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 하락했으며, 경상이익도 66으로 9포인트나 감소했다. 내수는 78에서 69로, 수출은 74에서 64로 하락세가 심화됐고, 반면 재고는 113에서 132로 19포인트나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도 4월 5.1%, 5월 2.0%, 6월 -0.7%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특히 전남은 5분기 연속マイ너스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삶이 고판해지면서 가계부채도 위험수위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시장에서 개인 저당권 여신이 +57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예금은행도 +1219억 원에서 1761억 원으로 확대됐다.

경기 불황은 업종을 불문하고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 거액 투자한 유명 화가 전시관 방치라니

예로부터 광주·전남은 한국화단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한국 근현대 회화의 거목 고 오지호(1905~1982) 화백도 그렇고, 화려한 색채와 풍물로 독창적인 화풍을 일군 전경자 화백 등 세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유명화가들을 배출한 자작들은 이들의 이름을 내건 전시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어 건립한 유명화가들의 전시관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자작체의 무관심과 문화 마인드 부재에 열악한 재정까지 겹친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군동에 위치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의 경우 올해 단 한 건의 기획 전시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05년 1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아래 최근까지 열린 기획전도 손가락으로 훑을 정도다. 컬렉션은 오 화백의 작품(복사본 50점) 51점과 아들인 승우·승윤씨의 기증작품 25여 점이 전부다.

오지호 기념관이지만 정작 오 화백의 진품은 단 1점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시관 운영의 필수조건인 학예사 등 전문가는 없다. 이렇다 보니 기획전과 프로그램 운영은 엄두도 못낸다.

고흥군의 문화행정은 더 가관이다. 지난 2007년 11월 천경자 전시실을 개관한 뒤 전 화백이 기증한 작품 66점을 전시해오다 작품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 전 화백 가족에게 최근 작품을 돌려주고 끝내 폐쇄하게 됐다. '천경자'라는 콘텐츠에 평소 관심을 냈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다. 잘 가꾼 미술관은 도시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다. 미술관을 활용할 문화마인드나 예산 지원없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지자체들의 전시행정은 이젠 극단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시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 無等鼓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7년 전인 1975년 8월 17일, 언론인이자 재야 정치인인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 천안군 이도면 도령3리 약사봉 계곡 절벽에서 변사체로 발견됐